

‘-더-’의 인칭 구조와 인칭 제약

담혜*

〈차 례〉

- 서론
- 선행연구 및 문제 제기
- ‘-더-’의 인칭 구조
- ‘-더-’의 인칭 제약
-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인칭의 시각으로 한국어 ‘-더-’의 인칭구조와 인칭 제약에 대해 고찰하였다. ‘-더-’의 의미 기능 기술에 필요한 구문 분석 방법을 제안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더-’가 쓰인 문장은 두 층위로 나뉘어 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더-’에서 나타나는 [과거] 의미는 화자의 지각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더-’의 인칭 구조는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 주어의 이중구조(double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는데,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가 다른 층위에 있으며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각자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넷째,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를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더-’와 주관동사(심리형용사)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인칭 제약 현상은 명제 내용 층위의 제약으로서 사실은 주관동사(심리형용사)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섯째, ‘-더-’와 서술어의 결합에서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명제 내용의 주어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했다.

[주제어] ‘-더-’, 인칭 구조, 과거, 1인칭 지각, 인칭 제약, 화칭자 인칭, 행위자 인칭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서론

‘더’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통사적인 제약이 많다는 점에서 특이한 형태소로 알려져 있다. ‘더’를 논의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인칭 제약 부분이다. ‘더’의 인칭 제약 현상이 언제 발생하고 어떤 조건에서 해소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의 제약 현상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인칭대명사가 실현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기존 논의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더’의 인칭 구조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더’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즉 인칭의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 한다. 이런 접근이 기존 논의에서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던 ‘더’의 의미 기능에 대한 해석을 완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시각으로 ‘더’를 바라봄으로써 ‘더’에 대한 보충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더’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더’의 [과거] 의미, 인칭 구조, 그리고 [1인칭 지각] 기능에 대해 논의하겠다. 이어서 4장에서는 ‘더’의 인칭 제약 현상을 재분석하겠다. 기존 논의에서 어떤 인칭대명사가 제약되는가를 중심으로 기술해 왔던 ‘더’의 인칭 제약 현상에 대해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를 구분해서 보는 입장으로 다시 논의하겠다.

2. 선행연구 및 문제 제기

‘더’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이미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더’의 문법 범주, 의미 기능, 제약 등의 문제나 유사 형태소와의 대조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현배(1937, 1955)에서는 ‘더’를 시제 형태소로 보았으며 ‘회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회상’으로 보는 최현배

(1937)를 받아들인 연구로는 고영근(1974, 1999가, 2004), 남기심(1978), 허웅(1979)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허웅(1979:89)에서는 ‘과거의 어떤 때에 일어난 일을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서술할 때에 쓰이는 형태소’로 정의하고 ‘더’의 시제 의미가 과거임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더’를 화자의 과거 경험을 뒤돌아보는 의미로 보아, 그 의미를 ‘회상’이나 ‘과거 시제’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는 ‘했’, ‘였’이나 ‘고 있다’ 등이 ‘더’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최근에 양태나 증거성으로 ‘더’의 의미 기능을 기술하려는 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장경희(1985), 서정수(1977a, 1978, 1979), 임홍빈(1993), 이홍식(1995), 한동완(1996), 송재목(1998, 2011, 2015), 박재연(1999), 목정수(2016) 등이 이에 속한다. 서정수(1977a, 1978, 1979)에서는 ‘더’를 말하는 이가 몸소 지각한 바를 듣는 이에게 직접 알리는 기능, 즉 ‘알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장경희(1985)에서는 ‘더’를 [과거 지각]으로 파악하였고 [지각]이란 감각활동을 전제로 하는 앎의 행위라고 하였다. 송재목(1998, 2007, 2011)에서는 ‘더’의 중심 의미를 ‘과거의 감각적 관찰’이라는 증거 양태 일환으로 파악하였다. 박재연(1999)에서는 ‘네’, ‘구나’, ‘거든’, ‘지’와의 대립을 통해 인식 양태로서의 ‘더’가 [지각], [새로 앎], [미지 가정]의 의미 영역을 갖는다고 제안하였다. 목정수(2016)에서는 증거성 표지 ‘더’를 [+1인칭 지각]과 [+과거]의 의미자질을 가진 복합체로 파악하였다.

‘더’를 인식양태로 보든 증거성으로 보든, 학자 대부분은 ‘더’의 [지각] 의미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장경희(1985: 58-80)에서는 ‘더’가 결합된 문장은 사건이나 사실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화자의 과거 지각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1) 가. 영이가 순이 동생이더라. (장경희 1985:64)

나. 영이가 순이 동생이야. (장경희 1985:64)

이 논의에 따르면 ‘-더-’가 쓰이지 않은 (1나)와 비교할 때 ‘-더-’가 쓰인 (1가)는 ‘영이가 순이 동생이다’라는 사실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어떤 사실에 대한 화자의 과거의 지각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장경희(1985)에서는 ‘-더-’의 [지각]의 행위를 다시 [봄], [들음], [느낌]으로 나누었으며 [지각]이란 감각 활동을 전제로 하는 앎의 행위이라고 하였다. 송재목(1998:154)에서도 “‘과거의 감각적 관찰’이란 화자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해 시각이나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과 감각 기관으로 과거에 관찰한 증거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철이가 노래 부르더라. (장경희 1985:65)’라는 문장은 ‘나는 철이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다/보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더-’가 쓰인 문장은 단문이지만 두 가지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철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하나는 ‘나는 들었다/보았다’이다. 이렇게 두 층위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 논의에서는 해당 문장을 두 층위로 나누어서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더-’가 쓰인 구문을 두 층위로 나눌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인칭의 시각으로 ‘-더-’를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목정수(2016)에서 제안하고 자세히 논의하지 못했던 ‘-더-’의 [1인칭 지각]과 [과거]의 의미자질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 보겠다.

또한 ‘-더-’의 인칭 제약현상에 대해서 장경희(1985:58)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2) A 同一 主語 制約

{그, 나는 느, *너는 느, *개는} 막걸리가 좋더라.

B 非同一 主語 制約

{그, *나는 느, 너는 느, 개는} 그 책을 보더라.

이에 대해서 장경희(1985:58)에서는 “A는 심리동사들에 나타나는 제약인데 화자와 일치하는 1인칭의 문장이 문법적이 되는 제약이다. B는 동작동

사에서 나타나는 제약인데 화자와 다른 2, 3 인칭의 문장만이 문법적이 되는 제약이다. A와 B의 제약현상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모두 해소될 수 있다.”라고 기술하였고 이런 제약 현상의 원인을 [지각]의 의미에 따른 선택 제한으로 설명하였다. 송재목(1998, 2011, 2015)에서도 증거성과 관련하여 위와 비슷한 내용으로 인칭 제약을 논의하였다.

(3) 막걸리가 좋더라. (장경희 1985:71)

(4) 그 책을 보더라. (장경희 1985:71)

(5) 어제 밤에 춥더라. (장경희 1985:71)

그러나 다음에 (3)-(5)와 같은 문장을 보면 인칭 대명사 (나는, 너는, 개는) 이 나타나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문장인데, 한국어 화자라면 이 문장이 누구에 대한 설명인지를 대변에 알아차릴 수 있다. ‘인칭’은 근본적으로 언어행위와 언어활동의 지시기능과 관련이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모든 언어에서 실현될 수밖에 없는 문법 범주이다. 그러므로 한국어는 인칭 대명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미를 통해서 인칭의 정보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 한국어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목정수(2014)에서는 한국어 인칭 구조의 특수성으로 설명한 바가 있다. 한국어의 어미는 언어의 인칭 정보를 비롯한 문법 정보의 최대 집적소이기 때문에 인구어처럼 구체적인 행위자 인칭 표시의 인칭대명사나 구체 명사가 주어 자리에 채워지지 않아도 인칭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 그 복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어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는 것이 한국어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어는 명시적인 주어 논항보다 동사와 어미의 형태를 통해 주어나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더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입각해서 보면 기존 논의에서 어떤 인칭 대명사의 실현이 제약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더’의 제약현상에 대해 시각을 바꿔서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더-’의 인칭 구조

1) ‘더-’의 구문 분석 방법

장경희(1985: 58-80)에서 ‘더-’가 결합된 문장은 사건이나 사실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화자의 과거 지각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더-’를 다시 [지각]의 행위를 [봄], [들음], [느낌]으로 나뉘었다. 송재목(1998;154)에서도 증거성의 관점으로 ‘더-’에 대해서 “‘과거의 감각적 관찰’이란 화자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해 시각이나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과 감각 기관으로 과거에 관찰한 증거가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6) 철수가 가더라.

이에 따르면 (6)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화자가 ‘철수가가’는 사건을 지각한 후에 ‘지금 여기’에서 발화하는 문장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건도 과거이고, 화자가 지각한 시점도 과거이다. 이를 풀어서 표현하면 ‘아까 보니까 철수가 가고 있었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 ‘아까 보니까’는 화자의 지각이나 증거 양태와 관련된 부분이고, ‘철수가 가고 있다’는 ‘철수’와 관련된 사건이다. 즉, ‘철수가 가더라.’라는 문장은 단문이지만 두 가지 정보가 동시에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 논의에서는 ‘더-’가 쓰인 문장에서 두 가지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이를 나누어서 분석하지 못했다. 뒤에서 제시하겠지만 ‘더-’와 관련된 현상들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거의 두 정보를 분리해서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뚜렷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어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본고는 목정수(2014)의 주장에 바탕을 둬서 미리 밝혀 둔다. 목정수(2014)에서는 서술어의 논항 구조 중심이나 명제 내용 중심의 통사론에서

벗어나서 인칭 구조를 바탕으로 한 어미 중심의 통사론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어의 특성에 맞는 문법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 방식은¹⁾ 기존 논의처럼 문장을 동사(어휘)부터 보는 언어관을 따르지 않고 한국어에서 여러 문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어미 ‘-더-’를 중심으로 하여 반대 방향으로 문장 구조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더-’에 얽힌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²⁾

- (7) 이번에는 합격하겠더라. (송재목1998: 143)
- (8) 내년부터 버스값이 오르더라. (송재목1998: 143)
- (9) 철수가 노래를 불렀더라. (송재목1998: 149)
- (10) 철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송재목1998: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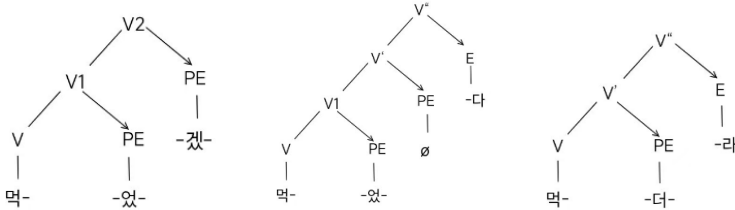
위 예문을 대상으로 보통은 동사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분석 방식을 취할 것이다.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 한 가지 난점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즉, ‘-더-’의 결합 환경의 설정 문제이다. 만약에 동사 ‘합격하-’, ‘오르-’, ‘부르-’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보면 (7)은 ‘합격하-겠-더-’, (8)은 ‘오르-더-’, (9)는 ‘부르-었-더-’, (10)은 ‘부르-고 있-더-’처럼 ‘-더-’의 실현 환경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위 예문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바로 동사나 ‘-었-’, ‘-겠-’, ‘-고 있-’과 ‘-더-’와의 결합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더-’는 항상 동사나 ‘-었-’, ‘-겠-’, ‘-고 있-’에 후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목정수(2023:59-68)에서는 동사(구) 확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형도로 제시하였다. 목

1) 목정수(2013, 2014)에서는 고영근·구본관(2008)에서 기본 문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예문들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제시된 것들이라고 하였으며 논항 또는 부가어를 문장을 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필수적 성분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서술어 중심의 문법관은 자칫 한국어 문장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어말어미의 역할을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 ‘-더라’가 쓰인 문장은 구어에서 ‘네’와 ‘나’가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서술어의 논항구조를 중심으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문어 문법의 틀로는 구어에 쓰인 ‘-더라’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목정수 2013: 513-523).

정수(2023)의 분석을 보면 한국어의 통사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 수 있다.³⁾

표(1) 한국어 동사(구)의 확장 구조



한국어는 외적으로 보면 어미가 하나씩 연결되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부 구조를 자세히 보면 층위성을 띠고 있다. 표(1)에서 제시한 것처럼 동사에 ‘-었-’이나 ‘-겠-’이 아무리 교착하더라도 질적인 동사확장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같은 층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가 결합하게 되면 승격해서 한 층위에 더 올라가게 된다.⁴⁾ ‘-더-’를 분석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현상을 단순하고 일관된 원리로 기술하려면 동사를 중심으로 통사적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즉 ‘-더-’를 기준으로 삼아 분석해 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면 ‘-더-’가 동사 어간에 교착하든 ‘-었-’이나 ‘-겠-’이나 ‘-고 있-’에 교착하든 그 환경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⁵⁾

또한 ‘-기 바라다’ 구문의 분석 방법은 ‘-더-’의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3) ‘-었-’, ‘-겠-’ 등이 ‘-더-’와 층위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최동주(1995)는 이런 선어말어미 요소의 통합순서 자체가 ‘형태론 층위- 통사론 층위- 화용론적 층위’의 순서를 갖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지만 본고는 목정수(2015, 2023)에 따라 이를 통사론의 문제로 다룰 것이다.
 4) 목정수(2023: 62)에서 “선어말어미 ‘-었-’이나 ‘-겠-’은 어휘적 장벽요소로 기능하므로 보조동사 구성의 확장형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었-’이나 ‘-겠-’은 ‘어 있-’이나 ‘-고 있-’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보조동사 성격의 선어말어미로 볼 수 있다.
 5) 목정수(2015: 325-360)는 [있], [졌], [더]의 기능과 문법적 지위를 규명하였다. [더]는 [있]이나 [졌]과 같은 계열에 속한 요소로 보기 어렵고 [더]를 선어말어미라고 했을 때, [있]과 [졌]을 그와 동일한 선어말어미로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있]이나 [졌]을 보조동사 또는 그에 준하는 구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목정수(2014:293-299)에서 ‘더-’ 구성과 문법화된 ‘-기 바라다’ 구성의 평행성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다.⁶⁾ 즉, 인칭의 구조의 관점에서 ‘더라’ 문장은 ‘-기 바라다’와 같은 문장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가. 철수가 성공하기 바래. (목정수 2014: 298)

나. [[철수가 성공하]기 바래].

(12) 가. 철수가 잘 먹더라. (목정수 2014: 299)

나. [[철수가 잘 먹]더라].

(11가)를 (11나)로 구문 분석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위 (12나)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지각’이 나타나는 ‘더-’ 구문을 (11)의 ‘-기 바라다’ 구문의 분석 방식과 같이 두 층위로 나눠서 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더-’가 결합하기 전에 한 층위가 이루어지고 ‘더-’가 결합한 다음에 한 층위가 더 이루어진다. 또한 ‘더-’에 나타나는 화자만의 ‘지각’ 기능을 고려하면 위 (7)-(10) 예문을 다음과 같이 구문 분석할 수 있다. []₂는 화자의 지각이나 증거 양태와 관련된 부분이고 []₁은 관련된 명제 내용이다.

(7)′ [[내가 보니][이번에는 합격하-겠]₁더라]₂.

(8)′ [[내가 보니][내년부터 버스값이 오르-∅]₁더라]₂.

(9)′ [[내가 보니][철수가 노래를 부르-었]₁더라]₂.

(10)′ [[내가 보니][철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₁더라]₂.

증거성의 관점으로 볼 때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송재목(2007)에서는 증거성(evidentiality)이란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에 대해 화

6) 목정수(2019: 293-299)에서는 문법화된 ‘-기 바라다’를 단문으로 보고 있다. 즉 ‘술어명사+기 바라다’ 혹은 ‘술어명사+ 바라다’ 구성에서 ‘바라다’를 상위문(=주절)에 놓고 ‘술어명사’를 하위문(=종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구조보다는 본동사가 구성하는 VP 구성과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보조동사 구성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원천(information-source)을 나타내는 문법표지라고 하였다. 이처럼 ‘더’는 증거성 표지이다. 위의 예문은 화자가 그 명제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쓰인다. 두 층위로 나누어질 때 한 층위는 명제내용이고 한 층위는 화자의 직접증거이다. 즉, 안쪽에 묶인 []₁은 명제 내용이고 []₂는 화자의 지각 행위이다. []₂에 위치하는 ‘더’는 눈에 보이지 않은 화자 ‘나’와 호응하는 어미이다. 증거성의 입장에서는 ‘더’의 이런 ‘1인칭성’은 ‘더’가 가지고 있는 증거성에서 기인된 당연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괄호로 ‘내가 보니’를 표시했다.

이를 근거로 예문 (7)-(10)를 다시 분석해 보겠다. ‘더’가 일반적으로 과거 상황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송재목(1998)에서는 이를 증거 양태 특성으로 해석하였는데 그 이유를 증거양태 개념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상황보다는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과거의 상황을 판별하는 데 더 유효한 범주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7)과 (8)은 ‘더’의 설명에서 항상 예외나 혹은 ‘더’를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는 가정에 대한 반례들로 봐 왔다. (7)과 (8)처럼 ‘더’는 미래 시간 어미나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쓰여서 미래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7)와 (8)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래 상황에 대한 기술은 화자의 지각이나 증거성을 나타내는 []₂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명제 내용을 나타내는 []₁의 내용이다. ‘더’는 ‘이번에는 합격하겠’, ‘내년부터 버스값이 오르’라는 명제 내용의 시점 문제와 무관하다. 즉, ‘이번에는 합격하겠’라는 명제 내용은 ‘겠’에 의해 명제 내용이 미래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데, 기술된 명제 내용의 시점을 미래에 위치시키는 것은 ‘겠’의 역할이지,⁸⁾ ‘더’의 역할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8)은 명제 내용의 시점은 영형태(∅)에 의해서 표시되는 것이지만 ‘더’에 의해 시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는 이 명제 내용에 이

7) 이것은 시점기준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3.2에서 할 것이다.

8) 이것은 ‘지각 시점에서의 추정’으로 볼 수도 있다. ‘겠’은 시제 요소인지, 서법 요소인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잠정적으로 이를 미래 시제 요소로 보기로 한다.

르게 되는 증거를 화자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지각했다는 의미만 나타낸다. 또한 부사 '내년'이 쓰여서 기술된 것은 명제 내용을 나타나는 []₁에 있다. 이것은 '-더-'와 층위가 달라서 '-더-'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충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예문 (9)에서 과거 의미를 나타나는 '-었-'과 '-더-'가 연속으로 나타나는 이 유도 분명해진다. '철수가 노래를 불렀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더-'가 덧붙여진 것은 이 명제에 대해서 지각자인 화자 '나'가 과거에 감각적으로 지각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9)의 명제 내용은 과거 상황 '철수가 노래를 불렀-'을 서술하고 있고 '-더-'도 과거의 의미가 있지만 '-더-'가 이 명제 내용의 시점을 과거에 위치시킨 것이 아니다. 명제 내용의 시간문제는 '-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더-'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같은 논리로 (10)의 명제 내용은 진행 상황 '철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서술하고 있고, '-더-'가 덧붙여진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철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라는 명제를 지각하였다는 의미이다.

2) '-더-'의 [과거] 의미

우리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라 '-더-'는 두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하나는 명제 내용이고 하나는 화자의 지각 행위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은 존재하는 층위가 다르다는 것을 검증했다. 따라서 '-더-'의 시간성 문제도 두 층위로 나뉘어서 볼 수 있다. 나아가 '-더-'의 [과거] 의미가 어느 층위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 먼저 '-더-'와 기준 시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발화시점(point of speaking)이 기준 시점이 되지만, 발화시점이 아닌 다른 미리 설정된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다. 전자를 '절대시제(absolute tense)'라고 하고, 후자를 '상대시제(relative tense)'라고 하였다(Comrie 1976 : 2, 1985 : 36).⁹⁾ 최동주(1994)는 '-더-'가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때의 기준시점을 후

자의 의미에 가깝다고 하였다. ‘-더-’의 이런 기능을 ‘기준시점의 이동’으로 설명하였다. 즉, ‘-더-’에 의해 상황을 보는 화자의 위치가 발화시점으로부터 상황을 알게 된 시점으로 이동한 것이다.

(13) 가.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

나. 철수가 학교에 갔더라.

다. 기차가 한 시간 후에 출발하더라. (최동주 1994: 48)

(14) 가. 철수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더라.

나. 철수는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최동주 1994: 47)

예문(13)과 (14)는 최동주(1994)에서 ‘-더-’가 발화시점 이전의 어떤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한 예이다. 이는 (13가)는 화자가 발화시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철수가 학교에 가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로, (13나)는 철수가 이미 그 이전에 가서 보지 못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학교에 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 (13다)는 기차 시간표를 보니까 기차가 한 시간 후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의미로 설명하였다. 즉, (13가)는 화자가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이며, (13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이며, (13다)는 그 시점에서의 미래이다.

또한 (14)는 ‘-더-’가 보통 절대시제를 표현하는 다른 시제 형태소와의 다른 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예로 볼 수 있다. (14가)와 (14나)의 차이는 그의 논의에 따르면 (14가)는 그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화시 기준으로 과거가 되는 것이다. 반면에 (14가)와 달리 (14나)는 절대시제 표현으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과거이다.

본고는 ‘기준시점의 이동’으로 설명되었던 ‘-더-’의 이런 기능을 인정하되, 다른 설명 방식을 취한다. ‘기준시점의 이동’은 명제 내용의 시간문제를 제

9) 이 기술은 최동주(1994: 42)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대로 설명하지만 화자의 지각 행위의 시간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¹⁰⁾ 본고는 ‘더-’의 시간문제도 두 층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최동주(1994)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더-’의 시간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준시점이 필요하다. 이것은 바로 지각시¹¹⁾(어떤 상황을 알게 된 시점), 발화시, 사건시(상황시)이다. 또한 명제 내용과 화자의 지각 행위는 각자 다른 층위에 있다는 본고의 입장으로는 명제 내용과 화자의 지각 행위의 시간문제를 같이 다룰 필요가 없다. 즉, 명제 내용의 시간문제를 따로 봐야 하고 화자의 지각 행위의 시간문제를 따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지각시, 발화시, 사건시의 관계도 같이 다룰 필요가 없고 같이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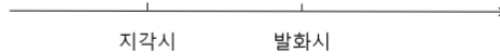
우선, ‘더-’의 [과거]의 의미를 논의할 때도 ‘더-’가 전달하는 과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명제 내용’인가, ‘화자의 지각 행위’인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더-’와 관련이 있는 것은 항상 []₂에 ‘(내가 보니)’로 본다. 따라서 ‘더-’가 전달하고 있는 [과거]의 의미도 당연히 ‘화자의 지각 행위’, 즉 ‘(내가 보기)’와만 관련이 있다. ‘더-’의 의미로 [과거]가 자주 제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화자의 지각 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준시점은 ‘발화시’와 ‘지각시’이며, ‘발화시’보다 ‘지각시’는 항상 앞서기 때문이다.¹²⁾ 즉 발화시를 기준을 할 때 ‘(내가 보기)’는 항상 과거에 있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최동주(1994)에서는 화자의 지각은 ‘더-’의 기본의미로 보지 않고 기준 시점의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이어서 문맥적 의미로 보았다.

11) 이 기준 시점은 많은 연구에서 여러 가지 용어로 정의되어 왔는데 본고는 장경희(1985)에 따라 이를 ‘지각시’라고 부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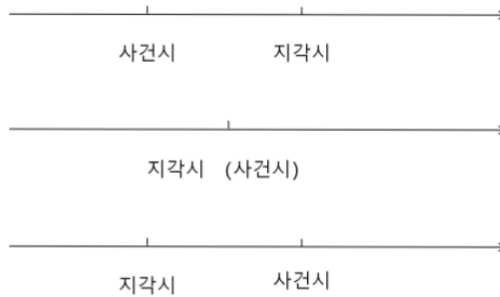
12) 이에 대해서 송재목(1998: 145)은 “다시 말해 ‘더-’의 문법적 의미는 기술된 문장의 상황을 발화시 또는 참고시 이전에 위치시키는 과거 시제가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증거를 발화시 이전에 화자가 감각적으로 관찰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 양태’이다.”라고 하였다. 최동주(1994)는 기준시점 이동의 ‘더-’는 필연적으로 인식시는 발화시 이전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표(2) 화자의 지각 행위와 관련이 있는 ‘발화시’와 ‘지각시’의 관계:



최동주(1994)에서 ‘기준시점의 이동’으로 지적했듯이 ‘명제 내용’시간 문제를 볼 때 ‘발화시’를 중심으로 ‘사건시’를 볼 수 없고 ‘지각시’를 중심으로 ‘사건시’와 ‘지각시’의 선후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사건시’와 ‘지각시’의 선후 관계도 세 가지의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사건시’는 ‘지각시’보다 앞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사건시’는 ‘지각시’보다 뒤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더-’의 의미로 ‘과거미완’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명제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건시’와 ‘지각시’의 관계:



김서형(2013)에서는 예문(15)를 중심으로 ‘-더-’는 과거 시간을 나타나는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과 ‘내일’도 같이 나타날 수 있어서 ‘-더-’를 시제 범주로 보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15)의 예시에서 보이는 문제는 바로 명제 내용의 시간문제와 화자의 지각 행위의 시간문제를 같은 층위에 놓고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발화시를 기준으로 명제 내용의 시간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 (15) 가. (발화시: 오늘) 어제는 날씨가 좋더라.
 나. (발화시: 저녁쯤) 오늘은 날씨가 좋더라.
 다. (발화시: 일기 예보 등을 통해 내일 날씨를 확인한 후) 내일은 날씨가 좋더라. (김서형 2013)
- (15)' 가. (지각시: 어제) [(내가 보니) [어제는 날씨가 좋]₁더라]₂.
 나. (지각시: 저녁 쯤) [(내가 보니) [오늘은 날씨가 좋]₁더라]₂.
 다. (지각시: 일기 예보 등을 통해 내일 날씨를 확인한 후) [(내가 보니) [내일은 날씨가 좋]₁더라]₂.

(15가다)에서 나타나는 ‘어제는’, ‘오늘은’, ‘내일은’은 명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해당 예문들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구문 분석하는 방식보다는 ‘지각시’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앞에 지적했듯이 ‘발화시’는 명제 내용의 시간문제를 논의할 때 필요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어제는’, ‘오늘은’, ‘내일은’의 출현 가능성 문제를 논의할 때 기준시점은 ‘발화시’가 아니고 ‘지각시’여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본고의 구문 분석 방식으로 예문 (15)를 (15)'로 재분석할 수 있다. (15'가)는 지각시와 사건시는 모두 ‘어제’이고 시간 부사 ‘어제는’이 쓰인 것이다. (15'나)의 사건시는 ‘오늘’이고 지각시는 ‘오늘 저녁’이다. 그 시점은 겹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이 쓰일 수 있는 것이다. (15'다)는 일기 예보 등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사건시가 지각시보다 이후이기 때문에 시간 부사 ‘내일은’이 쓰인 것이다.

- (16) 가. 철수는 (내일부터) 학교에 가더라. (송재목 1998:145)
 나. 철수는 (요즘) 노래를 부르더라. (송재목 1998:145)
- (16)' 가. [(내가 보니) [철수는 (내일부터) 학교에 가]₁더라]₂.
 나. [(내가 보니)[철수는 (요즘) 노래를 부르]₁더라]₂.

예문(16)은 송재목(1998:145)의 예인데 이에 대해서 송재목(1998)에서

는 ‘-더-’가 가지는 시제적 의미는 참조시나 발화시에 대한 상황시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일견 이런 지적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역시 명제 내용의 시간문제와 화자의 지각 행위의 시간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고의 입장에서는 예문 (16)을 (16)’로 분석하고 []₁ 명제 내용의 시간성을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각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건시’와 ‘지각시’의 선후 관계를 논의할 것이다. 따라서 []₁의 ‘철수는 학교에 가다’와 ‘철수가 노래를 부르다’라는 명제 내용의 시점은 부사어 ‘내일부터’와 ‘요즘’을 통해 미래나 현재 상황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각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₂에서의 화자의 지각 행위의 시간성을 ‘발화시’를 기준으로 ‘지각시’와 ‘발화시’의 선후 관계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₂에 있는 화자의 지각 행위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과거이다.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는 위의 표(2)와 표(3)을 참조할 수 있다.

(17) * 이순신 장군이 왜적들을 물리치더라. (최동주 1995: 50)

(17)' * [(내가 보니) [이순신 장군이 왜적들을 물리치]₁더라]₂.

예문(17)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 서정수(1977)에서는 이를 ‘몸소살핌제약’으로 해석했다. 최동주(1994) ‘기준시점의 이동’으로 (17)이 비문법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는 시점과 같은 시점이 기준시점이 되어야 하는데,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당시의 일을 직접 겪거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점이 기준시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는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이 (17)과 같은 발화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영상매체에 의해 그 장면이 마치 눈앞에 벌어지는 경우는 이 시점이 기준시점이 될 수 있어서 (17)은 성립할 수 있다.

우리는 본고의 방식으로 (17)을 (17)’로 재분석할 수 있다. 우선, 명제 내용의 시간문제로 (17)이 비문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왜적들을 물리치-’라는 명제내용은 ‘-었-’이 없기 때문에 ‘비과거’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사건시’와 ‘지각시’의 선후 관계를 볼 때 ‘지각시’보다 ‘사건시’는 뒤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현대인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불가능하다. 그러나 영상 매체에 의해 그 장면이 마치 눈앞에 벌어지는 경우는 ‘지각시’와 ‘사건시’는 동시일 수 있기 때문에 발화가 가능해진다. 다음에 화자의 지각 행위를 볼 것이다. ‘더’는 명제 내용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지각을 전제하고 있는데 (17)은 ‘지각’이 일어나지 못하는 발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영상 매체에 의해 그 장면이 마치 눈앞에 벌어지는 경우를 빼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다.

3) ‘더’의 [1인칭 지각] 기능과 인칭 구조

다음에 본고에서 제안하는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더’의 동일주어제약 현상에서 예외로 취급하는 사례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더’의 [1인칭 지각] 기능을 설명하고 ‘더’의 인칭 구조를 설명하겠다.

(18) 가. 내가 양말을 뒤집어 신었더라. (박재연 2019: 13)

나. * 나는 양말을 일부러 뒤집어 신었더라. (박재연 2019: 13)

(18) 가. [(내가 보니)내가 양말을 뒤집어 신었₁더라]₂.

나. * [(내가 보니)나는 양말을 일부러 뒤집어 신었₁더라]₂.

박재연(2019:13)에서는 임홍빈(1993/1998)의 ‘인지전 비의식 조건’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18가) 예문이 ‘비동일 주어 제약’을 어기고도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18나)와 같이 ‘일부러’ 뒤집어 신었다면 ‘더’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비록 양말을 신은 것이 자기 자신의 일이라는 하지만 뒤집어 신었다는 것을 지각의 시점까지는 알지 못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본고의 설명 방식으로 재분석할 수 있다.

(18)를 (18)’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18나)를 (18’나)로 분석한 것을 보

면 []₁ 명제 내용 층위에 ‘일부러’가 쓰인다. 따라서 (18나)가 비문이 된 이유도 분명해진다. ‘일부러’가 쓰이면 이런 명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지각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이때 ‘-더-’가 쓰이게 되면 ‘-더-’의 지각 의미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18'가)를 분석할 것이다. (18'가)의 []₁은 명제 내용인데, 이때 ‘-었-’에 의해 지각시를 기준으로 볼 때 과거에 어느 순간에 이미 완성된 사건이다. []₂는 화자의 지각 행위이다. (18'가)를 보면 여기 1인칭 대명사 ‘내가’만 쓰여 있지만 지각 행위를 하는 ‘나’와 ‘양말을 뒤집어 신었다’의 ‘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지각 행위를 하는 ‘나’와 ‘양말 뒤집어 신었다’의 ‘나’는 모두 ‘나’이지만 서로 다른 층위에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즉, 화자가 자기의 행위를 객관화하여 타인(제3자)의 행위를 보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8가)의 화자 ‘나’는 현재 발화하고 있는 ‘나’이고 ‘내가’는 양말 뒤집어 신은 ‘나’이다. 화자 ‘나’는 양말 뒤집어 신은 ‘나’를 타인(제3자)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양말을 뒤집어 신었다’는 사건을 지각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명제 내용의 ‘내가’는 3인칭화된 ‘나’로 볼 수 있다.¹³⁾ 지각하는 사람인 ‘나’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더-’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더-’에 의해 실현된 ‘1인칭 지각’이다.

한국어에서는 이런 ‘1인칭 지각’의 정보가 어미에 없어서 실현되고 있지만 유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증거성과 관련된 1인칭 지각(화자1인칭)은 반드시 한국어의 선어말어미와 같은 의존적인 문법 형태소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1인칭 지각과 명제 내용을 구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회재(2009: 69-74)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이런 증거성과 관련된 1인칭 지각(화자1인칭)의 차이를 인식하고 영한 번역의 입장에서 이에 대

13) 이에 대해서 목정수(2016: 70-100)에서는 ‘-더-’는 1인칭 주어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과거적접관찰’이라는 증거성 의미 때문에 화자 1인칭과 관련된 것이며, 행위의 대상으로서는 3인칭 명사(또는 3인칭화된 ‘나’)가 요구되는 것이다.

해 설명하였다. 이는 “영어에는 I think, I believe, I remember, I discover, I feel처럼 인식이나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 앞에서도 반드시 주어를 써줍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나는’이라는 말을 꼬박꼬박 집어넣으면 오히려 어색합니다.”라고 설명하였다.

金立鑫(2011:135-138)에서는 유형론의 시각으로 이런 화자 1인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19) 法语中的 Il me semble (我觉得) , Cela me semble (在我看来) ; 德语中的 Es tut mir leide (我很遗憾) , 逻辑主语都不用主格, 他们讲话时, 都把“我”(法语中的me, 德语中的mir) 都置于很客观的位置. (프랑스어의 경우 Il me semble(내가 보기에는), Cela me semble(내가 보기에는); 독일어의 경우 Es tut mir leide(유감이지만), 이들은 명제 내용의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주격조사가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의 화자 ‘나’(프랑스어의 ‘me’, 독일어의 ‘mir’)는 아주 객관적인 위치에 놓여서 발화되는 것이다.)

위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런 ‘1인칭 지각’의 기능은 한국어는 선어말어미 ‘-더-’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각자 ‘나’와 명제 내용의 주어가 각자의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목정수(2014, 2020)에서도 한국어의 이런 인칭의 특성을 인식하여 한국어의 인칭 구조가 화청자 인칭과 행위자 인칭의 이중구조(double structure)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⁴⁾ 한국어에서 인칭이 어미로 실현되느냐, 구체적

14) 목정수·문경진(2020)에서는 “화청자인칭이란 ‘문장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행위자인칭이란 ‘명제 내용 속에서 행위 주체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칭의 이중구조는 ‘굴절인칭→동사인칭→대명사인칭’의 단계로 실현된다. 굴절인칭의 경우 종결어미가 한국어에서 필수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일차적이다. 동사인칭은 동사(=서술어)가 가지고 있는 어휘의미/사건구조/개념구조에 따라 제약이 따르며, 상호적으로 어미와의 제약 관계 역시 뒤따른다. 대명사인칭은 명사의 차원에서 행위자 인칭을 구체적으로 명명하는 단계인데 그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지만 가장 구체적인 단계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인 명사나 인칭대명사로 실현되느냐에 따라 문법적인 차원의 ‘화자 청자 지시적 굴절적 인칭’과 어휘적인 차원의 ‘행위자적 대명사적 인칭’으로 나뉠 수 있다. 화청자인칭과 행위자인칭은 다른 층위에 있는 것이므로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실현된다. 화청자 인칭은 실제 발화에 존재하는 참여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위자인칭은 명제 층위에 적용되는 인칭으로서 언어 표현으로 대상화된 주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성립하는 근거를 제공한다.¹⁵⁾

(20) 할머니, 그동안 잘 계셨어?

우선, ‘할머니’는 명제 내용의 주어(행위자 인칭)로 높임의 대상으로 ‘계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청자인칭의 측면에서는 청자로서의 ‘할머니’를 친밀하게 여기는 상대로서 반말체 어미 ‘-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화청자인칭과 행위자인칭은 다른 층위에 있는 것이므로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화자 ‘나’는 한국어에서는 어미에 의존하여 실현되고 있지만, 동일한 상황에 쓰이는 영어의 경우는 화자 ‘나’가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통해 한국어에서 어미에 얽혀서 실현된 화자 1인칭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1) 가. 그 사람 바나나를 좋아할까?

(I wonder) He likes bananas ?

나. 읽어 줄게.

(I promise) I read you something.

15) 목정수(2014, 2020)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화용론이 아닌 통사론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영어와 같은 유형의 언어는 화용론의 영역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지만 한국어는 통사론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화청자의 관계를 말해 주는 어말어미가 문장에 명시적인 형태로 그리고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괄호에 있는 ‘I wonder’와 ‘I promise’는 어미 ‘-을까’와 ‘-을께’에 의해서 나타나는 화자인칭으로 볼 수 있다. 목정수(2015:429-475)에서는 수행문(performative sentence) 분석에 있어 문장 앞쪽에 ‘(I wonder)’, ‘(I promise)’을 넣는 것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화자 인칭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영어에서는 화청자의 관계가 한국어처럼 형태 요소로 실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에 대해서 목정수(2014:281)는 “한국어에는 대명사인칭과 동사인칭의 중간 단계의 인칭표지로서 소위 증거양태의 선어말어미 ‘더-’가 있다. ‘나-중심’의 증거양태(egophoric evidential)는 화자가 서술어가 표현하는 사태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제시된 정보의 진실성을 책임지는 입장임을 나타내는 문법 장치이다. ‘나-중심’의 증거양태는 주로 화자 1인칭과 관련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더-’가 쓰인 문장도 화청자 인칭과 행위자 인칭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층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에 의해 실현된 ‘1인칭 지각’의 기능은 화청자 층위의 화자 인칭으로, 명제 내용의 주어는 행위자 층위의 인칭으로 볼 수 있다. 즉, ‘더-’가 쓰인 문장의 인칭 구조는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행위자 주어) 이중 구조(double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더라’와 평행성이 있는 ‘기 바라다’를 통해 ‘더-’의 이런 이중구조(double structure)를 보완 설명하고자 한다. 목정수(2014:293-299)에서는 ‘더라’ 구성과 문법화된 ‘기 바라다’ 구성의 평행성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다. 즉, 다음 예문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인칭 제약과 인칭구조 측면에서 보면 두 구조를 살펴본다면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가)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기 바라’의 주어는 화청자 인칭으로서의 화자는 ‘나’이고 ‘성공하’의 주어는 행위자 인칭으로서의 ‘철수가’이다. 같은 논리로 (22나) ‘더라’의 주어는 화청자 인칭으로서의 화자 ‘나’이고 ‘잘 먹-’의 주어는 행위자 인칭으로서의 ‘철수가’이다. 즉, ‘더-’가 요구되는 구성은 화청자 인칭과 행위자 인칭이 분리되고 인칭의 복문처럼 인식될 수 있다.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더-’를 인칭적으로 볼 때 화자 인칭, 즉 1인칭 지각이 마치 상위의

주어처럼 해석되고,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명제 내용의 주어는 마치 종속 절의 주어처럼 의미적 측면에서 비1인칭 주어로 해석된다.

(22) 가. 철수가 성공하기 바래. (3-1)(목정수 2013: 298)

나. 철수가 잘 먹더라. (3-1) (목정수 2013: 299)

또한 ‘-더’의 1인칭 지각과 명제 내용의 주어가 분리된다는 것과 인칭적으로 인칭의 복문처럼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은 중국어의 증거성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승남(2021)은 중국어의 증거성 표현 수단에 입각하여 한국어 ‘-더라’의 중국어 대응표현을 ‘我看见/看到’, ‘我发现’, ‘我觉得’로 제안하였다. 다음 예는 송승남(2021)에서 제시하는 예인데 밑줄과 기울임은 필자가 한 것이다. 다음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밑줄을 한 부분은 ‘-더라’와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대응표현 ‘我看见/看到’, ‘我发现’, ‘我觉得’이다. 기울임을 하는 부분은 명제 내용의 주어이다. ‘-더라’의 중국어 대응표현은 명제 내용을 내포하는 주술구조 ‘我看见/发现/觉得……’로 볼 수 있다. 즉, 첫 번째 층위인 ‘我看见/看到’, ‘我发现’, ‘我觉得’은 ‘-더라’의 1인칭 지각을 풀이한 결과이고 ‘我看见/看到’, ‘我发现’, ‘我觉得’는 주술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我’는 인칭적으로 볼 때 상위의 주어로 볼 수 있다. 명제내용은 두 번째 층위에서 상위의 술어 ‘看见/发现/觉得’와 다시 술목구조가 된다.¹⁶⁾ 명제 내용의 주어는 마치 종속절의 주어처럼 해석된다. 즉, 중국어 ‘我看见/

16) 叶蜚声, 徐通锵 등(2015:179-193)는 중국어 문장의 구성 규칙과 결합의 층위성과 점층성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다. 중국어 문장은 겹에서 보면 단어가 하나씩 연결되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부 구조를 자세히 보면 층위성과 점층성을 띠고 있다. 병렬구조를 제외한 기본구조는 모두 두 개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층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모든 층위는 두 개의 구성성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층위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문법구조의 층위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결합의 점층성으로 인해 문장 구조가 층층이 겹쳐져 있는 가운데 한 층위가 다른 층위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가 아무리 중복되어 사용되어도 구조적인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

예: “我知道你不知道我知道你不知道……”

구술구조와 술목구조가 반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경우(술목구조가 주술구조의 술어, 주술구조가 다시 술목구조의 목적어)는 논리적으로 끊임없이 겹쳐져서 확장될 수 있다.

看到英姬去学校.'라는 말은 '我'와 감관동사 '看见/看到'의 결합으로 먼저 주술구조가 이루어진다. '看见/看到'와 '英姬去学校'가 다시 술목구조가 이루어진다. 인칭적으로 볼 때 '我'는 상위의 주어로 볼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英姬去学校'의 '英姬'는 종속절의 주어로 볼 수 있다.

(23) 가. 영희가 학교에 가더라.

我看见/看到英姬去学校.

나. 계획표를 보니까 나는 내일 가더라.

看了看日程表, 我发现我明天走.

다. 나는 어제 밤에 무척 덥더더라.

我觉得我昨晚很热.

박재연(2004)에서도 '-더-'의 인칭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더-'를 화/청자 지향적 양태 요소로 보았다. 하지만 본고의 입장과 달리 그는 이런 현상을 통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는 “화/청자 지향적 양태 요소는 명제 내용의 일부가 아니라 명제 내용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요소이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라 명제 바깥, 담화 상의 화/청자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라고 하였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겠지만 이런 '1인칭 지각'과 명제 내용의 주어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관점은 동일하다.

한편, 화청자 인칭과 행위자 인칭은 다른 층위에 있는 것이므로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실현된다는 한국어의 특징을 인식하지 못하는 논의도 적지 않다. 아래는 송재목(2011 :59 주21)의 서술을 인용한 것이다.

(24) “직접지식의 증거성표지는 언어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와는 함께 사용되

지만 3인칭 주어와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Aikhenvald 2004 : 217-233).

따라서 유형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주어제약은 '-었더니'에 증거성 의미

가 들어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이지, 증거성 의미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선어말어미 ‘-더-’의 특징이다. ‘-더-’는 종결어미나 ‘-더니’에서 ‘직접관찰’이라는 증거성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직접관찰’의 증거성 표지는 1인칭 주어를 좁게 허용하지 않는다.”

송재목(2011: 59 각주21)에서는 ‘-더-’와 1인칭성의 관계가 오히려 유형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들이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행위자 주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파악한다. 다음에 송재목(2011: 59)에서 드러나는 문제의식을 한 문장씩 설명해 보이도록 하겠다.

우선, “직접지식의 증거성표지는 언어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와는 함께 사용되지만 3인칭 주어와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Aikhenvald 2004 : 217-233).”라는 문장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여기에 말하는 1인칭 주어와 3인칭 주어는 명제 내용 []₁ 층위의 주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직접지식의 증거성표지가 1인칭 주어와만 잘 공기하는 현상은 영어이든 한국어이든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즉, 직접지식의 증거성표지와 함께 사용되는 1인칭 주어는 영어의 ‘I think, I believe, I remember, I discover, I feel’처럼 인식이나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 앞에 나타나는 ‘I’이다.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₂ 층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더-’와 호응 관계를 이루는 것은 1인칭 지각(내가 보니)이다.

“따라서 유형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주어제약은 ‘-엇더니’에 증거성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이지, 증거성 의미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술은 ‘-엇더니’ 구문에서 1인칭 대명사만 나타나는 현상(명제 내용의 주어)을 보고 이를 영어의 ‘I think, I believe, I remember, I discover, I feel’처럼 인식이나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 앞에 나타나는 ‘I(1인칭 지각)’로 오인해서 생긴 오해로 보인다.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엇더니’에서 나타나는 1인칭 제약 현상이 증거성 의미를 뒷받침해 준다는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엇더니’ 구문에서의 주어 1인칭은 []₁ 층위에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지 $[[]_2$ 층위에 ‘더-’와 호응관계를 이루는 1인칭 지각(내가 보니)의 1인칭이 아니다. 즉, ‘내가 양말을 뒤집어 신었더라.’라는 문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었-’에 의해 ‘내가’가 관찰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3인칭화된 ‘나’라고 할 수 있다. 1인칭(명제 내용의 주어)이지만 1인칭 지각(내가 보니)의 ‘나’로 볼 수 없으며 구분해서 3인칭화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더니’에 나타나는 3인칭과 ‘-었더니’에 나타나는 1인칭을 모두 명제 내용의 주어로서 3인칭으로 파악하여 다루지 않으면 ‘더-’가 포함된 문장에서 나타나는 인칭 제약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선어말어미 ‘더-’의 특징이다. ‘더-’는 종결어미나 ‘더니’에서 ‘직접관찰’이라는 증거성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직접관찰’의 증거성 표지는 1인칭 주어를 좀체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기술 역시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더-’의 비동일 주어 현상(명제 내용의 주어 제약 현상)을 보고 유형론에서 문제가 된다는 설명인 듯하다. 그러나 본고의 입장처럼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행위자 주어)를 구분하게 된다면, 한국어의 이런 현상은 전혀 문제가 없는 현상이다. 여기에서 1인칭 주어가 좀체 허용되지 않는 것은 $[[]_1$ 층위 명제 내용에 따른 주어 제약 현상으로 봐야 지, $[[]_2$ 층위 ‘직접관찰’의 증거성 표지인 1인칭 지각(화자 1인칭)에 따른 제약 현상으로 볼 수 없다.

지금까지 ‘더-’의 1인칭 지각 기능과 ‘더-’의 인칭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인칭 지각(화자 1인칭)은 ‘더-’에 의해서 실현되고 명제 내용의 주어와 항상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 명제 내용의 주어가 1인칭일 경우이더라도 1인칭 지각과 명제 내용의 주어가 같다고 볼 수 없다. ‘더-’가 쓰인 문장의 인칭 구조는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행위자 주어)의 이중 구조(double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1인칭 지각과 명제 내용의 주어는 각각의 층위에 존재하며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각각의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실현된다.

4. ‘더-’의 인칭 제약

앞선 문제 제기 부분에 지적했듯이 기존 논의에서 ‘더-’의 인칭 제약 현상은 주로 어떤 인칭대명사의 실현이 제약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3.3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더-’의 인칭 구조는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행위자 주어)의 이중구조(double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히 1인칭 제약 현상이나 혹은 3인칭 제약 현상으로 볼 수 없고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즉 인칭 대명사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온 ‘더-’의 인칭 제약 현상을 본고에서는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를 구분해서 보는 입장으로 재분석하겠다.

1) 주관동사(심리형용사)의 1인칭과 ‘더-’에 의해 나타나는 ‘1인칭 지각’의 구분

우선,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를 구분하는 입장에서 ‘더-’와 주관동사(심리형용사)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동일주어제약에 대해 재분석하겠다. 왜냐하면 본고의 입장으로는 외형상 주관동사(심리형용사)와 ‘더-’의 결합에서 1인칭 주어를 취하더라도 주관동사(심리형용사)의 주어 1인칭과 ‘더-’로 인해 나타나는 1인칭 지각이 동일한 1인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5) 가. 나는 막걸리가 좋더라.

나. { * 그는, * 너는 } 막걸리가 좋더라. (장경희 1985:71)

예문(25)는 기존 논의에서 ‘더-’의 화자와 문장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동일 주어 제약의 사례이다. 이에 대해서 장경희(1985)에서는 “심리동사가 서술어인 문장에서 주어가 2·3인칭인 경우에 ‘더-’가 결합되면 부적절

한 발화가 되는 것은, 이 두 발화의 내용이 모두 화자가 지각할 수 있는 지각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더’의 기능에 대한 탁월한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관동사(심리형용사)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2·3인칭의 제약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관동사(심리형용사)로 의해 2·3인칭제약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어미 ‘-더’로 인해 2·3인칭제약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25) 가. [(내가 보니)[나는 막걸리가 좋]₁더러]₂.

나. [[(내가 보니)][* 그는, * 너는] 막걸리가 좋]₁더러]₂.

본고의 구문 분석 방법으로 예문 (25)을 다시 (25)’로 분석해 보겠다. 예문 (25) { * 그는, * 너는}의 실현이 제약되는 이유도 분명해진다. {나는}은 ‘-더’에 의해 나타나는 1인칭 지각이 아니고 명제 내용의 주어이다. 즉, {나는, * 그는, * 너는}은 주관동사(심리형용사) ‘좋다’와 같이 []₁ 층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₁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다. 주관동사(심리형용사)는 원래 2인칭이나 3인칭과 결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어서 ‘-더’가 없어도 { * 그는, * 너는}이 ‘좋다’와 같이 쓰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1인칭을 구분해서 보면 (25)’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주관동사(심리형용사) ‘좋다’와 결합할 때 { * 그는, * 너는}이 제약되는 것은 명제 내용의 층위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관동사(심리형용사)로 인해 일어나는 인칭제약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문 (26)처럼 명제 내용의 주어가 3인칭의 경우는 주관동사(심리형용사)를 ‘주관동사-어 하’로 바꾸거나 인용어미 ‘-(는)다’로 바꾸면 된다. ‘철수는’처럼 3인칭 명사가 명제 내용의 주어로 실현될 수 있다.

(26) 가. 철수는 니가 떠난 것을 쉽섭해하더러. (목정수2015:341)

나. 철수는 미역국 좋아한다고 하더러구요.

위의 내용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제 내용의 '나'와 '1인칭 지각'(화자 1인칭)이 모두 존재하며,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주관동사(심리형용사) '좋다'의 주어 '나는'은 명제 내용의 주어이지, '-더-'에 의해서 실현된 1인칭 지각(화자 1인칭)은 아니다.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를 구분하는 입장에서 '-더-'와 주관동사(심리형용사)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2·3인칭 제약 현상은 주관동사(심리형용사)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

다음은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를 구분하지 못한 논의에서 제기된 '-더-'의 인칭제약 대한 기술이 설명에 있어 어떤 난점에 부딪히게 되는지를 제시하고 본고의 설명 방식의 필요성을 제시하겠다. 송재목(1998: 162-163)에서는 동일주어제약과 관련해서 설명해야 할 용어들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보다, 듣다'와 같은 관찰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송재목(1998)에서는 이런 동사가 따로 설명해야 하는 이유를 이 동사들은 화자의 관찰을 나타내는 동사들인데, '-더-'와 함께 1인칭 주어를 취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어가 1인칭의 경우는 '보다'나 '듣다'가 '-더-'와 같이 모두 화자의 관찰을 나타내는데 '보다'나 '듣다'가 '-더-'와 결합된 문장은 오히려 비문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화자 자신의 감각을 나타낼 때도, 동일 주어 제약 현상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비문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 따로 설명해야 하는 난점에 부딪히게 된다. 송재목(1998)의 이런 설명의 난점도 마찬가지로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27)'를 통해 알 수 있다.

(27) 가. 나는 지붕 위로 날아가는 전투기를 보았다./ * 보더라. (송재목 1998: 162)

다. 나는 빗문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 들더라. (송재목 1998: 162)

(27)' 가. 나는 지붕 위로 날아가는 전투기를 보았다.

나. * [(내가 보니) 나는 지붕 위로 날아가는 전투기를 보]₁더라]₂.

다. 나는 빗문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라. * [(내가 보니) [나는 빗문 떨어지는 소리를 듣]₁더라]₂.

예문(27)'은 본고에서 제안 하는 분석 방식으로 예문 (27)을 다시 분석한 것이다. (27)'을 보면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를 구분하는 시각으로는 '나는'이 명제 내용의 주어이지, '1인칭 지각'(화자 1인칭)의 '나'로 볼 수 없다. 둘은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동사 '보다', '듣다' 등과 '-더-'가 모두 1인칭 주어를 취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1인칭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게 되면 송재목(1998)과 같은 설명의 난점이 생긴다.

2) '-더-'로 인해 일어나는 인칭 제약 현상

다음은 강옥구 시인이 영어로 쓰고 직접 한국어로 번역한 시 <그 고움만 보았네>이다. 간결한 표현을 가장 좋아하는 문학 형식은 시라고 할 수 있다. 이희재(2009: 69)는 이 시에서 보이는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인식하고 설명한 바가 있다. 그는 “영어 원시와 한국어 번역시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간결함으로 보자면 영어 원시도 그야말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아무리 줄여도 주어 'I'까지 없앨 수는 없다. 그런데 한국어 번역시에는 '나는'이 들어가면 아마 시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국어는 주어를 잘 안 쓰는 언어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8)¹⁷⁾

Taking a walk	산보하다
I saw	한 송이 들꽃을

17) 이 예문은 이희재(2009: 69)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a wildflower	보았네.
Not knowing its name	이름을 모르기에
I saw	그 고움만
its beauty only	보았네.

(28)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영어에서는 주어와 필수 요소이고 이를 통해 인칭이 나타나지만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국어에서는 어미가 인칭을 드러내기 때문에 굳이 주어 성분이 나타나지 않아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더’도 마찬가지이다. ‘더’가 포함된 문장도 이런 인칭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로 인해 일어나는 대명사 인칭의 제약 현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객관동사(기술동사(성상형용사)와 행위동사)는 어휘 내적으로 인칭 제약이 없으며 ‘더’와 결합할 때, ‘더’는 명제 내용의 주어를 3인칭으로 제약하는 힘이 있다.¹⁸⁾ 그리고 ‘더’는 주관동사(심리형용사)와 결합할 때 명제 내용의 주어를 1인칭 대명사만으로 해석된다.¹⁹⁾ 다음은 ‘더’가 동사(서술어)와의 상관관계에 따라 명제 내용의 주어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장경희(1985:72)에서는 (29)와 같은 예문에서 동일한 ‘좋다’라는 서술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29가)에는 인칭 제약이 존재하고 (29나)에는 인칭 제약이 존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9나)에서는 화자의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 시력이 1.5 또는 1.2라는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시력이 좋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고, (29가)에서는 남의 시각에 대해서는 화자의 시각

18) 송재목(1998)은 ‘더’의 1인칭 주어 제약은 ‘더’와 주어 사이에 있는 통사론적 제약이 아니라 ‘더’의 양태적 의미와 1인칭 주어 사이에서 생겨나는 의미론적 제약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다. 관찰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사태를 주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찰의 중심에 있는 개인의 행위나 사태는 관찰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1인칭 주어도 2인칭이나 3인칭과 같이 객관화되는 경우에는 관찰의 대상이 된다.

19) 목정수(2014)에서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휘적의미/사건구조/개념구조에 따라 인칭의 제약이 따르고, 상호적으로 어미와의 제약관계가 뒤따른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동사 부류를 크게 주관동사(=심리동사), 기술동사(=성상형용사), 행위동사로 구분하였다. 주관동사와 기술동사는 전통 국어문법에서의 각각 ‘심리형용사’와 ‘성상형용사’에 해당된다.

작용은 발생할 수가 없어서 '-더-'의 결합에 인칭제약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9) 가. (ㄱ. 나는, ㄴ. * 너는, ㄷ. * 그는) 막걸리가 좋더라.

나. (ㄱ. 나는, ㄴ. 너는, ㄷ. 그는) 시력이 좋더라. (장경희1985: 72)

본고는 (29)의 예문을 다르게 보고 있다. 예문 (29)에서 두 문장의 '좋다'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성격의 서술어로도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9가)의 '좋다'는 '싫다'와 짝이 이루는 주관동사(심리형용사)이고 (29나)의 '좋다'는 '나쁘다'와 짝을 이루는 기술동사(성상형용사)이다. 즉, '-더-'와 결합하는 서술어의 성격이 다름으로 인해 인칭 대명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0) 가. 막걸리가 좋더라.

나. 시력이 좋더라.

(30)' 가. [(내가 보니)][(나는) 막걸리가 좋₁더라]₂.

나. [(내가 보니)][(그는) 시력이 좋₁더라]₂.

(30가)처럼 서술어 '좋다'는 주관동사(심리형용사)일 경우는 (30'가)처럼 분석하고 명제 내용의 주어가 1인칭 '나는'으로 해석된다. 주어가 명사 또는 대명사로 명시적으로 실현되지 않아도 '-더-'의 쓰임으로 해석해 낼 수 있다. 즉, 주관동사(심리형용사)의 주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주어가 1인칭이라는 것을 주관동사(심리형용사)와 '-더-'의 결합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30나)처럼 서술어 '좋다'가 기술동사(성상형용사)일 경우는 (30'나)처럼 명제 내용의 주어가 3인칭 '그는'으로 해석된다.²⁰⁾ 따라서

20) 익명의 심사자는 (29나)의 경우에 '나'와 '너'가 모두 용인 가능하기 때문에 본고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때의 '나'와 '너'도 실제로는 3인칭(3인칭화된 '나'와 '너')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명제 내용의 주어 차원에서 주어가 명사 또는 대명사로 명시적으로 실현되지 않아도 ‘-더’가 어떤 동사와의 결합에 따라 대명사 인칭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 수 있다.

(31) 가. * 내가 가더라.

나. 철수가 가더라.

(31)' 가. * [(내가 보니)[내가 가₁더라]₂.

나. [(내가 보니)[철수가 가₁더라]₂.

또한 행위동사는 주관동사(심리형용사)와 달리 객관동사라서 어휘 내적으로 인칭제약이 없으며 인칭결합에 있어 더 자유로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31)처럼 ‘-더’의 구문에서는 3인칭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1)'의 분석을 보면 명제 내용의 주어가 1인칭 대명사 ‘나’와의 결합이 제약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즉, ‘-더’의 개입으로 1인칭 지각을 함의하는 것이다. 화자가 다시 자신의 행위를 지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에 대해서 송재목(1998)은 관찰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사태를 주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찰의 중심에 있는 개인의 행위나 사태는 관찰의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1인칭 지각과 명제 내용의 주어를 뚜렷이 구분해서 봐야 한다. 행위동사의 주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주어가 3인칭이라는 것을 행위동사와 ‘-더’의 결합을 통해 알 수 있다.

‘-더’가 객관동사(행위동사, 기술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명제 내용의 주어가 3인칭으로 제약되며, 주관동사의 경우는 1인칭으로 제약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의 경우 1인칭 대명사 ‘나’가 쓰여 있어도 3인칭화가 된 ‘나’로 해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3인칭 명사가 쓰였어도 1인칭으로 해석되어야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것이다.

(32) 가. 나는 떡이 먹고 싶어.

나. 철수는 떡이 먹고 싶어. (철수=1인칭화 된 '나')

다. 철수도 외롭더라구. (철수=1인칭화 된 '나')

(33) 가. 철수가 학교에 가더라.

나. 내가 양말을 뒤집어 신었더라. (내가=3인칭화 된 '나')

(32가)와 (32나)의 예처럼 주관동사 '-(고) 싶-'과 어말어미 '-어'의 결합에 있어서, 주어 자리에는 1인칭 대명사만 나타날 수 있다. (32나)에서 '철수는'이라는 성분이 3인칭 고유명사로서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문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철수'를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화된 '나'로 해석되어야 한다. 같은 논리로 (32다)는 주관동사 '외롭다'와 '-더라구'의 결합에 의해서 '철수도'라는 성분이 3인칭 고유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와 있어도 '철수도'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화 된 '나'로 해석되어야 정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면에 (33)은 행위동사와 '-더-'의 결합은 주어 자리가 3인칭 대명사로 제약된다. 즉, (33가)는 '철수가'처럼 3인칭 고유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 (33나)의 '내가' 나타난다 해도 이는 '철수'처럼 3인칭화된 '나'로 해석되어야 정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유현경(2017)은 '-더-'의 인칭 제약 문제는 서술어가 되는 용언의 유형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현경(2017:74)에서는 예문 (34) '가다'의 의미 중 선어말어미 '-더-'의 결합에서 보이는 인칭 제약이 일반적인 '학교에 가더라.'에서 나타나는 인칭제약 현상과 반대여서 '-더-'의 인칭 제약 문제는 서술어가 되는 용언의 유형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하였다.

(34) 가. {나는/*너는/*그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가더라. (유현경 2017 :74)

나. {나는/*너는/*그는} 오늘 만난 남자에게 무척 호감이 가더라. (유현경 2017 :74)

다. {나는/*너는/*그는} 그 사람의 옷차림으로 자꾸 눈길이 가더라. (유현

경 2017 :74)

라. {나는/*너는/*그는} 좋은 물건 쪽으로 자꾸 눈이 가더라. (유현경
2017 :74)

이에 대해서 본고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34)의 예시에서 나타나는 ‘가다’는 행위동사 ‘가다’처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34)는 여전히 ‘-더-’가 객관동사(행위동사, 기술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주어가 3인칭으로 해석되며, 주관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1인칭으로 해석된다는 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34)′ 가. [[내가 보니][나는/*너는/*그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가]₁더라]₂.

나. [[내가 보니] [나는/*너는/*그는] 오늘 만난 남자에게 무척 호감이
가]₁더라]₂.

다. [[내가 보니][나는/*너는/*그는] 그 사람의 옷차림으로 자꾸 눈길이
가]₁더라]₂.

라. [[내가 보니][나는/*너는/*그는] 좋은 물건 쪽으로 자꾸 눈이 가]₁더라]₂.

(34)의 예시를 본고의 구분 분석 방법으로 (34)′처럼 분석할 수 있다. 우선, {나는/*너는/*그는}의 실현 가능성 문제는 []₁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은 ‘-더-’에 의해 실현된 지각자 ‘나’가 아니다. 즉, (34)의 실현이 가능한 ‘나는’은 명제 내용의 주어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사와 ‘-더-’의 결합에서 동사의 성격에 따라 인칭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다. 객관동사(행위동사와 기술동사)와 결합할 때는 ‘-더-’가 명제 주어의 인칭을 3인칭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반면에 ‘-더-’가 주관동사(심리형용사)와 결합할 때는 명제 내용의 주어는 1인칭으로만 해석된다. (3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제 내용의 주어가 ‘나는’만 가능하다는 것은 서술어가 주관동사(심리형용사)이어야 한다. 다음은 예문 (34)의 서술

어는 주관동사(심리형용사)이라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예문 (34)와 같은 경우의 서술어의 성격에 대해서는 陸正洙 · 朴隆培(2017)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陸正洙 · 朴隆培(2017)에서는 ‘호감이 가’ 등의 ‘가다’는 하나의 기능동사(support verb)로서, ‘행위’, ‘감정 및 인지’의 명사 부류와 결합하여 주관동사(심리형용사)의 성격을 가지는 서술어 구성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겁(이) 나다’처럼 ‘신경이 가다’, ‘호감이 가다’, ‘눈길이 가다’, ‘눈이 가다’는 주관동사(심리형용사)처럼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34)에서의 ‘가다’를 단순히 행위동사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즉, ‘신경이 가다’, ‘호감이 가다’, ‘눈길이 가다’, ‘눈이 가다’에서 ‘가다’만을 따로 봐서 안 되며, 서술명사 ‘신경’, ‘호감’, ‘눈길’, ‘눈’과 기능동사 ‘가다’가 결합된 구성으로 주관동사(심리형용사)로 봐야 한다. 따라서 해당 예문들을 ‘더-’와 주관동사(심리형용사)의 결합으로 본다면 명제 내용의 주어가 1인칭으로 해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²¹⁾

5. 결론

본고는 ‘더-’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본고의 해석을 제시하였다.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를 구분해서 보는 입장으로 ‘더-’의 인칭구조와 인칭 제약을 재분석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더-’가 쓰인 문장은 두 층위로 나뉘어 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하나는 명제 내용이고 하나는 화자의 지각 행위이다. 둘째, ‘더-’에서 나타나는 [과거]의 의미는 화자의 지각 행위를 말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더-’의 인칭 구조는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 주어의 이중구조(double structure)로 되

21) 본고는 이런 문장을 이중주어 구문으로 보지 않고 1인칭 ‘나’를 주어로 본다. 자세한 논의는 목정수(2014, 2018, 2023), 목정수 · 조서희(2021)을 참조할 수 있다.

어 있으며,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가 다른 층위에 있는 것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1인칭 지각(화자 1인칭)과 명제 내용의 주어를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더-’와 주관동사(심리형용사)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2·3인칭 제약 현상은 명제 내용 층위의 제약으로서 사실은 주관동사(심리형용사)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섯째, ‘-더-’와 동사(서술어)의 결합에서 동사(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명제 내용의 주어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즉, 객관동사(기술동사와 행위동사)와 결합할 때 ‘-더-’는 명제 주어의 인칭이 3인칭으로 해석되고 ‘-더-’는 주관동사(심리형용사)와 결합할 때 1인칭으로만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더-’를 전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고 ‘-더라’에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이는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형형과 연결형에 나타난 ‘-더-’ 역시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2004.
- 고영근·구분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18.
- 구분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 『한국어 문법 총론 I: 개관, 음운, 형태, 통사』, 집문당, 2015.
- 김서형, 「더라고요의 의미와 기능」, 『한어문교육』 제28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3, 445-487쪽.
- 박재연,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국어학회, 1999, 199-225쪽.
- _____, 『한국어 어미의 의미』, 집문당, 2019.
- 남기심, 『국어문법의 시제문제에 관한 연구』, 탑출판사, 1978.
- 남기심·고영근,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5.
- 서정수, 「‘더-’는 회상의 기능을 지니는가?: 종결법과 인용법의 ‘더-’를 중심으로」, 『언어학』 2, 한국언어학회, 1977, 97-125쪽.
- 서정수, 『국어 문법의 연구』, 한국문화사, 1990.
- 임홍빈·이익섭, 『國語文法論』, 학연사, 1985.
- 목정수, 『한국어, 보편과 특수 사이』, 태학사, 2013.
- _____,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2014.
- _____, 『목정수 교수의 색다른 한국어 문법 강의』, 한국문화사, 2015.
- _____, 「유형론과 정신역학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 서법과 양태」, 『한국어학』 70, 한국언어학회, 2016, 55-108쪽.
- _____, 「한국어 통사론의 나아갈 방향: 논항 구조에서 인칭 구조로의 전환」, 『한글』 80, 한글학회, 2019, 891-940쪽.
- _____, 『언어유형론, 정신역학론 그리고 한국어 문법』, 한국어문화사, 2020.
- _____, 『한국어 구문 연구: 유형론적 접근』, 박이정, 2023.
- 睦正洙·朴隆培, 「敘述名詞의 論項의 格 실현 양상 - 自動性 機能動詞를 중심으로 -」, 『語文研究』 제45권 제2호, 語文論文, 2017, 61-88쪽.
- 목정수·문경진, 「한국어 인칭 구조 보론: 이선웅(2019)의 비판에 대한 반박」, 『형태론』 22, 형태론, 2020, 149-184쪽.
- 성기철, 『한국어 문법연구』, 글누림 출판사, 2007.
- 송승남, 「한국어 ‘더라’의 중국어의 대응 표현 분석」, 『한국학연구』 제62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267-298쪽.
- 송재목, 「안맺음씨끝 ‘더-’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유형론적 관점에서」, 『국어학』 32, 국어학회, 1998, 135-169쪽.
- _____, 「인식양태와 증거성」, 『한국어학』 44, 한국언어학회, 2009, 12-53쪽.
- _____, 「‘더니’와 ‘있더니’: 선어말어미 ‘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어학』 32, 국어학회, 2011, 33-67쪽.
- _____, 「증거성과 인칭의 상호작용」, 『언어학』 73, 사단법인언어학회, 2015, 111-132쪽.
- 장경희, 『한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1985.

- 유현경, 「한국어 용언의 인칭 제약에 대한 연구」, 『국어학』 83, 국어학회, 2017b, 65-92쪽.
- 이희재, 『번역의 탄생』, 고양인, 2009.
- 최동주, 「현대국어의 선어말 {-더-}의 의미에 대하여: 마침법의 경우」, 『어학연구』 30:1, 서울대학교 언어학 어학연구소, 1994, 41-73쪽.
- _____, 「국어 사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 허 응, 『문법』, 과학사, 1979.
- _____, 『국어 때매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1987.
- 金立鑫, 『什么是语言类型学』,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11.
- 叶蜚声·徐通锵, 『 중국 언어학개론』, 교육과학사, 2015.

A study on argument structure and person constraint phenomenon of ‘-teo-’

譚惠(TAN HUI)*

The author reviewed the existing studies on ‘-teo-’ and determined that it was a meaningful topic to research further on, since the existing studies did not provide sufficient coverage on the grammatical person structure of ‘-teo-’.

This paper proposes the grammatical analysis method of ‘-teo-’, required for the semantic functional techniques. While the author was pointing out problems in the existing research, and attempted to provide own explanations on the topic, the author arrived at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sentences written with ‘-teo-’ can be divided into two levels.

Second, the [past] meaning appearing in ‘-teo-’ refers to the speaker’s cognitive behavior.

Third, the grammatical person structure of ‘-teo-’ is a double structure of the first-person’s perception (speaker person) and the subject of the propositional content. The first-person’s perception (speaker person) and the subject of the propositional content are at different levels, independently realized in their respective levels without any conflict.

Fourth, the person constraint phenomenon shown in the combination of ‘-teo-’ and a subjective verb (psychological verb) should be regarded as a constraint phenomenon caused by the subjective verb (psychological verb).

Fifth, when ‘-teo-’ is combined with a verb, the subject of the propositional content varie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verb.

* University of Seoul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octor course completion

Key words : -teo-, argument structure, the past, first-person's perception,
person constraint phenomenon, first-person constraint phenomenon,
speaker & listener-person, actor-person